

이탈리아 도서관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터넷간의 상호작용

: 이탈리아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통제를 확립할 것인가?

Fiorello Cortiana¹⁾, Antonella De Robbio²⁾, Paolo Ferri³⁾ 공저
정혜림 역 _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사서

이 글은 2009 밀라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프로그램 중 “178.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법적문제 분과(178.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with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발표된 “Th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Internet through libraries in Italy: is the Italian government going to establish controls on Internet Content?”의 번역판입니다.

초록

이 논문은 이탈리아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지식을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인터넷에 만연한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이탈리아 정부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저작물을 정의할 인터넷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을 두고 있으며, 저자의 저작

- 1) Fiorello Cortiana - 밀라노 지역(Povincia di Milano)
http://it.wikipedia.org/wiki/Fiorello_Cortiana
이메일: f.cortiana@provincia.milano.it
- 2) Antonella De Robbio - 도서관 대학센터- 이탈리아 Padova 대학 도서관 시스템
이메일: antonella.derobbio@unipd.it
CRUI(Conference of the Italian University Rectors)의 이탈리아 오픈 액세스 워킹 그룹 회원. Padova 대학의 도서관 시스템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여하며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토리 프로젝트 담당.
- 3) Paolo Ferri - Milano-Bicocca 대학 교육과학대학 인식론 및 해석학과 교수
이메일: paolo.ferri@umimib.it

권 보호 문제가 발생할 때 정책이 이용자의 최대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또한 '부가 가치'에 대한 개념을 탐구했으며, 특히 오픈 포맷에 관하여 저자의 권리 측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픈 액세스와 같이 이탈리아에서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를 살펴보면, 본 논문은 또한 이탈리아 지역사회 내에서의 논쟁과 이탈리아가 직면한 과제들, 특히 법적인 조건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블로그와 아마추어 사이트에서의 게시 및 사실 활동에 의한 저작물로 정의된 저작권과 다른 법적 문제,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령, 필터링 도구의 사용과 과징안(Levy proposal)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모든 관련 단체들의 상황과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윤곽을 제시하려는 목표와 함께 관련 기관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장 경쟁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지적 재산 침해 개념에 대한 오해와 문화적 획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 저작권을 이용하는 최근 경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정보 접속(Connectivity)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접근경계선(Police line)'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면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 사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증가할 것이라 우려된다.

본문

지식사회에서 가치 생산과 분배의 모형은, 선형과정이 아닌, 모든 참여자가 차별적인 법적 조항 없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있다. 생산과 상업적인 성공의 모형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생산과 상업적 성공 모형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해주는 상황, 상호운영성에서부터 미디어 통합까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와 저작물을 포함한 기억저장소로서의 인터넷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이용된 디지털 매체와 상관없이 생산적인 유비쿼티(Ubiquity)가 가능하다. 주요 언어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식, 지적 생산물의 공유, 문화적 다양성의 향유, 자유롭게 아는 것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 생태적 정신으로 생태적 접근에 충실하기 위해 알려진 공공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은 균형 있는 관계를 가진 인류학적 영역과 생물학적 영역 모두 적용한다.

유럽연합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열었던 2000년의 야심찬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를 통해 2010년까지 유럽이 정보 사회와 지식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목표의 해로 정하였다. 2006년 로마의 IBM 포럼에서 리스본 의회(리스본 아젠다 추진을 위해 유럽 연합에 의해 지원을 받는 조직)의 Ann Mattler는 유럽 경제의 70%가 3차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관계, 지식, 디지털 객체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는지 생각해 보자.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길은 있으며, 소외는 1인 노동자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직의 문제이다. 더구나 지식 노동자는 지적 생산 도구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참여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그들은 광범위한 장서를 구매할 여유가 없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한다.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공공도서관은 개인과 사회집단의 평생교육과 자립적인 의사결정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선언은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로서, 또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과 평화를 증진하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유네스코의 신념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국가 및 지역 정부가 공공 도서관을 지원하거나 그들의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지식사회의 사슬에서, 도서관의 행동은 시장이 실패한 곳에서 시작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식 경제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녹색(Green Paper on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⁴⁾ 공개자문에 회신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이탈리아도서관협회(AIB)는 연구, 과학, 교육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육성하는 데에 저작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지식 경제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지식경제의 콘텐츠는 문화, 교육 기관 및 대학, 학교, 박물관, 도서관, 기록원 외에 허가된 공급업체에서 수집, 기록, 처리, 배포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은 실물 장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 도서관의 필수적인 중간매개가 되었다. 장서의 개발, 보존, 목록작성, 조직의 지식 및 배포, 프로그램 지원 정보활용능력, e-러닝 활동 모두는 이용자와 문서의 문화유산,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인종, 언어의 편견과 차별에 반하여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무선별적이고 통제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가졌으므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의 이용이 권고된다.

4) 공개자문에 대한 회신

http://circa.europa.eu/Public/irc/market/market_consultations/library?l=/copyright_neighbouring/consultation_copyright&vm=detailed&sb=Title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은 인터넷 접속 정책(Internet Access Policy)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지적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과 기존 지식 기반시설 및 특히 전자 생산물과 서비스가 소비되고 있는 접근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서관은 연구(study), 조사(research), 교수(teaching)와 연관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용자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적합하고 공정한 정책을 따라야 하며 금지된 활동은 모든 이용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도서관은 모두의 합리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도구의 사용에 시간제한을 두는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한편, 자료의 형태(전통적인 또는 디지털) 또는 콘텐츠의 위치(관내 또는 온라인)가 바른 사용법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관련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저작권이 아니며, 저작권 보호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이용과 규정된 관습을 위해 콘텐츠 파생물을 위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창작의 형식이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서 매일 정보의 폭발이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콘텐츠 생산물은 지식경제의 부가가치로써 유일한 형식이 아니다. 콘텐츠 선별이나 연구 평가와 같은 부가 가치들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들에 의해 제공된다. 오픈 포맷의 채택은 의무적으로 출판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공공 영역 웹사이트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접근의 어려움은 초심자(newcomers)들의 장애물이며 콘텐츠 확보 시장의 진입 방해물이다. 더욱이, 포맷의 변형 및 재수정의 허락은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의 제한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버전 및 형식의 변형 허락은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의 한계가 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지식의 자유로운 접근보다 저작권의 소유자들을 더 보호하려는 매우 혼란스런 저작권법의 결과이다.

이탈리아의 학술 환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정착, 성장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유럽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⁵⁾ 이후 이탈리아에 정착한 오픈 액세스 운동(OA)이다. 둘째는 오픈(open) 대학을 정의하기 위한 5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춘 윌러 선언(Wheeler Declaration)⁶⁾이다. 오픈대학은 학생, 교수진, 행정 등 모든 커뮤니티를 포함한다. 셋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Creative Commons) 행위가 이탈리아의 저작권법⁷⁾으로 수정되

5) <http://oa.mpg.de/openaccess-berlin/berlindeclaration.html>

6) <http://www.earlham.edu/~peters/fos/2008/10/wheeler-declaration-for-open-university.html>

7) <http://www.creativecommons.it/>

어 통합된 것이다.

2004년 11월, CRUI(Conferenza dei Rettori delle Università Italiane)는 “오픈 액세스를 위한 이탈리아 대학: 학술 문헌을 위한 오픈 액세스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메시나 컨퍼런스(Messina Conference)가 개최 되었을 때 오픈 액세스 출판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들의 도서관 위원회 임무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 지식을 위한 베를린 선언”에 대한 이탈리아 대학의 지지를 홍보하였다. Padua 대학의 Vincenzo Milanese 총장 덕분에 메시나 선언문(Messina Conference principles)⁸⁾을 통하여 CRUI는 과학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공공 도메인에 속해 있는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원문 오픈 액세스(full and open access)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탈리아 대학 및 연구기관(Itali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에서 생산된 과학지식의 웹 보급(web dissemination)이 활성화되었다.

2006년 초, CRUI 도서관 위원회 내에 Roberto Delle Donne에 의해 오픈 액세스 이탈리아 그룹(Italian Group for Open Access)⁹⁾이 설립되었으며 베를린 선언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그룹은 학술계에서 오픈 액세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인식하도록 만들고 오픈 아카이브 제작 및 전자 출판물 사업의 실현을 위한 지시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서를 작성했다.

2007년 9월, Padua 대학은 오픈 액세스 운동의 다양한 사업들과 주요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 집합시켜 오픈 액세스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문화유산 보급의 오픈 액세스를 지원하는 개발 도구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며, 학술 커뮤니케이션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과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자 베를린 5 국제회의¹⁰⁾를 계획하였다.

회의, 워크숍, 출판 및 OA¹¹⁾에 관한 이탈리아 위키와 같은 아주 강력한 국내 홍보 활동으로 모든 대학에 원칙과 제안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국제적 활동에 의해 40개 이상의 대학이 자체 제도적 기록관리소를 열었다(약 50개 기관).¹²⁾

또한 법률 및 박사학위 출판을 위한 단체는 연구 평가 절차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오픈 액세스 저널의 생산을 위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사 학위논문¹³⁾ 소장 방침이 있는 여러 이탈리아 도서관(20

8) 메시나 선언(Messina Declaration) <http://www.aepic.it/conf/viewappendix.php?id=49&ap=1&cf=1>

9) <http://www.cruil.it/HomePage.aspx?ref=894>

10) 베를린 5 오픈 액세스 “실행에서 결과까지: 지식 보급의 결과”, 이탈리아 Padua 대학, 2007년 9월 19-21일 <http://www.aepic.it/conf/index.php?cf=10>

11) http://wiki.openarchives.it/index.php/Pagina_principale

12) OpenDOAR 디렉토리

<http://www.opendoar.org/find.php?search=&clID=&ctID=&rtID=&cfID=106&IID=&rSoftWareName=&submit=Search&format=charts&step=20&sort=r.rName&rID=&ctrl=new&p=1>

개 이상)이 학술 상원의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의무 규정의 채택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전략적 주요 이슈는 연구 평가에서 새롭게 확산되는 문화와 이 사례에서의 사서들의 역할로 나타난다. 연구 평가는 다양한 접근법과 결과물 평가(동료 검토), 그리고 계량서지학적 분석 기술, 사회에 대한 연구 논문의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새로운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과학계량 분석의 두 가지 측면이다. 2009년 이탈리아 오픈 액세스 워킹그룹(WG)에서는 평가 절차에서의 오픈 액세스 도구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초안을 작성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노력은 Politecnico di Torino의 Juan Carlos de Martin이 구축한 커뮤니티 테마 네트워크(COMMUNIA Thematic Network)¹⁴⁾를 주축으로 일어난다. 이 조직은 유럽의 이론 분석 레퍼런스 핵심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공 도메인과 관련하여 현존하며 최근 생겨난 이슈에 대한 전략적 정책 토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커뮤니티는 오픈 대학 캠페인(*Open University Campaign*)¹⁵⁾에 의한 윌러 선언(Wheeler Declaration)의 5개 주제에 살을 붙여 현재 관련된 영향을 먼저 평가했다.

- 1) 대학이 생산한 연구결과는 오픈 액세스이다.
- 2) 교육 자료는 오픈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이다.
- 3) 대학은 무료 소프트웨어와 공개 표준(*open standards*)을 포함한다.
- 4) 대학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무료 소프트웨어와 주요 약품, 공공재에 대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 5) 대학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공개성을 반영한다.

공공도서관, 저작권 및 인터넷 사용은 표현의 자유와 주변의 이슈를 조종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럼 이탈리아가 직면한 것은 무엇인가?

저작권에 관하여, 현행 기준은 저자의 권리에 관한 이탈리아법(저작권이란 용어와 저자의 권리와는 엄연히 다르다)이며, 이 법의 “L. 22/04/1941 No. 633, 저작권의 보호와 그 시행과 관련된 기타 권리의 보호”¹⁶⁾ 조항은 최근 “L. 18/08/2000 No 248,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 규칙”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위해

13) <http://www.cruif.it/HomePage.aspx?ref=1149>

14) <http://www.communia-project.eu/>

15) http://wiki.freeculture.org/Open_University_Campaign

16) http://www.giustizia.it/cassazione/leggi/1633_41.html

적인
이
동료
새
탈리
권
뮤니
유럽
최
캠페
살을
공
중
저자
시
위한
권해

예외규정을 두거나 특권을 주며, 무료 사용이나 제한된 권한의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한 사용(Fair Use)이란 공중의 이익과 저작의 저자들이 함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공정한 사용은 특정 조건아래 기존의 정보부터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정한 이용은 없으며 단지 예외규정이나 가장 심한 권리 제한이 있을 뿐이다. 2000년 248조에 따라 저작권 규제 영역에서 예외조항은 저작의 재생산에 고정요금을 제공한다는 협의된 사항으로 타협과 제한이 이루어져 왔다.

2008년 여름, CRUI 도서관 위원회의 저작권실무단은 조사연구 및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에 초점을 둔 특별 문건으로 유럽의 “지식 경제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녹색”¹⁷⁾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이탈리아도서관협회와 연계하여 작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논의에는 창작적인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의 대안 형식, 과학 출판물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저자를 알 수 없는 저작(예, 저작권 미상 저작물(orphan works))¹⁸⁾의 관리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도서관들이 인터넷의 개방된 환경을 종종 반영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네트워크를 제외한 기술적 장치로 도서관 내에서만 가능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이 격렬한 토론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관리자 네트워크로 통제와 제지가 가능한 메일 클라이언트(POP/IMAP)나 VOIP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Skype, Ekiga 등), 사회적 네트워크 플랫폼과 같은 무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위탁하고 있다. 논쟁은 항상 이용자들이 접속한 트래픽 데이터 로그 파일들을 얼마동안 저장할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저작권 침해에 반대하는 Urbani 법령¹⁹⁾과 필터링 도구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Gentiloni 법령²⁰⁾ 두 가지를 통해 몇 가지 행동이 구체화되어 있다. Berlusconi 두 번째 정부의 문화 유산 장관이었던 Giuliano Urbani에 의한 Urbani 시행령은 “문화적 상품과 활동 분야에서 필요한 긴급조치”이다. 웹 사이트나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음악이나 영화 저작권 침해를 제재하는 이 법령은 2004년 128조항으로 전환되면서 이 단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다. Urbani 시행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네트워크에서의 공유를 범죄로 처음 도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포함한 범죄에는 금고형 대신에 벌금이 부과된다.

17)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copyright-info/copyright-info_en.htm

18) http://wiki.openarchives.it/images/d/d6/Green_Paper_on_copyright_Call_for_comments_CRUIOAWORKINGGROUP.pdf

19) http://www.interflex.it/testi/404_128.htm

20) <http://poliziadistato.it/pds/file/files/decreto%20Gentiloni.pdf>

미국 통신부 장관 이었던 Palo Gentiloni에 의한 Gentiloni 시행령은 네트워크에 인터넷 연결점 제공자 필터링 도구의 기술적 조건과 관련한 법으로 국제 센터와 대비되는 아동 포르노로 인식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위한 것이다. Law 38/2006의 공식 정부 시행령은 아동포르노 반대 국가센터나 협력 제공자의 요구로써 제출된 잘 드러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도메인 네임 서버(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또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가장 쉬운)의 수준과 IP주소(너무 구별이 안되는) 수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2007년 Prodi 정부에서 출범된 Ricardo Fransco Levi에 의한 법률 C1269 제안은 제 16차 입법부 및 문화 위원회²¹⁾에 다시 제출되었다. 즉, 전체 산업을 재편성하고 온라인 활동 내에서의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시도로, 본문이 공인된 블로그와 아마추어 사이트를 의미할 수 있는 출판활동과 편집활동의 산물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법률안 제2조에 따르면 편집결과물은 “출판물인지의 여부와 만들어진 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이 배포되는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객관적인 상품 정보, 훈련, 보급,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탈리아의 시나리오에서 또 다른 과제는 “지식의 공유(Share the Knowledge)”²²⁾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 기업의 대표, 과학, 문화, 생물학적 영역의 학계와 사회 등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연차 국제회의로 디지털 시대에 생물학적 영역의 과학, 문화, 관습을 각 영역 간의 상이한 표현 언어를 통해 인류학적인 영역의 다른 그러한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회의 참가자들만이 아니라 사서도 역시, 공유하는 전제가 혼탁한 조건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인지적 가치가 있는 산물로 새 단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UNESCO와 UN WSIS 결의 그리고 지식 사회에서의 EU 리스본 아젠다의 지지를 얻었다.

2009년 지식의 공유는 Darwin 제안에서 Lisbon 제안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의의 결과와 제안은 여러 계층의 기관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경제적 후진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과제로 인터넷에서의 광범위한 지식 확산을 삼고 있다.

국제 발전의 측면에서, 이탈리아가 서명한 세계정보사회서밋(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기본선언과 같은, 모든 유관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과 시민사회

21) LEVI: "Nuova disciplina del settore dell'editoria e delega al Governo per l'emanazione di un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legislative in materia di editoria" (1269)

http://www.camera.it/_dati/leg16/lavori/stampati/pdf/16PDL0014370.pdf

22) <http://www.condividilaconoscenza.org/>

의 민간단체 간의 적절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를 통해 대규모의 인터넷 자체의 가버넌스를 위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참조 틀의 정의를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기관, 산업, users reaches Italy의 명확한 역할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분야의 특정 영역의 이익을 막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시장 경쟁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책임지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적 재산의 침해는 절도다”라고 한 장관의 발언은 개념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절도”의 뜻은 올바른 소유권자로부터의 재산의 제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복제 구조는 다른 이들의 권리보유를 막지는 않는다. 그에 반하여, 최근 경향은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료 콘텐츠 사용 가능성을 실제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보호”기술을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PC나 자동차의 라디오, 기타 전자시스템에 정품 구입이용을 보호함으로써, 혹은 음질을 저하시킴으로써 문화 상품 구매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는 미국, 스웨덴, 한국과 같은 진보된 나라와 이탈리아 간의 디지털 격차 증가를 거두고 있는 “접근경계선”의 역할을 연결성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입법부의 특별한 생각에 경악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터넷 권리헌장(Internet Bill of Rights) 안은 공개와 참여 과정으로서, 기관의 규제 및 자기 규제(self-regulation)와 같은 사회적 보완 규약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그 자체로서 정의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차별화된 비동기식 인식과 관련된 방식으로 그 자체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안은 교토 의정서와 완전한 논리적인 관계에서 존재한다. 지식 사회에서 가치의 생산 및 모형의 보급은, 선형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 차별 조건이 없는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참여자와의 협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식의 본질이란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인식론적인 배경의 반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역사적인 시간과 생물학적인 시간 간의 관계에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킬 위험성은 없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이다.

공공도서관은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공간의 시간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이며, 물리적인 관계의 대체물이 아니라 도입부이며,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공동의 공공재로서의 권리와 권리로서의 공공재. 공공재로서의 도서관, 권리로서의 도서관.